

濯纓 金駟孫의 <續頭流錄>攷*

- 記述方式과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

문범두**

- I. 序論
- II. 文章記述의 方式
- III. 修己治人の 道學的 理念
- IV. 山水樂과 逆說的 志向
- V. 結論

【요 약】

<속두류록>의 양식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문장 기술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문학적 성과를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작품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작가의식의 실상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속두류록>은 경물에 대한 기술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 표현을 동원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문학적성은 유려한 언어적 형상미보다는 자연 경물과 인문적 事象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이를 내면의 知的 인식과 적절하게 조응시키는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탁

* 이 논문은 2006년도 진주산업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영이 士林의 一人으로서 소위 詞章으로 일컬어지는 문학의 공효를 인정하기는 하되, ‘載道之器’로서의 문장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개입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품에서의 작가의식은 두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탁영이 지리산 遊山을 통하여 유학자의 학문하는 노력과 내면을 수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 점이다. 治世治民의 뜻을 드러내 보이하고자 한 것도 여기에 든다.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유학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당대 사회가 지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그의 태도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철저했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둘째는 산을 현실과 대극적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遊山을 학문의 연찬과 관직 수행의辛苦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한 점이다. 신선과 같이 자연 속에서 소요자적하면서 현실에서 겪는 다기한 곡절을 잠시 잊고 정신적 유일을 탐하고자 한 의도 역시 뚜렷한 모습으로 본 작품에 두루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드러난 탁영의 정신적 면모는, 산이 주는 脫俗性에 전적으로 묻혀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최고운의 事跡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그 스스로는 고운과 같은 불우를 답습하지 않을 뿐더러, 현존하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현실세계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I. 序論

<續頭流錄>은 濯纓 金駟孫(1464-1498)이 1489년(성종20년) 4월 14일부터 동월 28일까지 15일 동안 지리산을 탐승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遊記 작품이다. 그의 心友인 一蠹 鄭汝昌과 함께¹⁾ 天嶺(지금의 慶南 咸陽)의 남쪽 성문에서 출발하여 산청, 단성, 목계, 중산리를 거쳐 쌍계사 인근 불일암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²⁾

遊記는 특정 지역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학의 일종으로 특히 산을 탐승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다시 山水遊記, 遊山記, 山水記, 山水遊錄 등으로도 지칭된다. 전통 한문 문체인 ‘記’체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유람기록으로서 일찍부터 하나의 독립된 양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중국에서 산수유기는 대개 唐代의 元結과 柳宗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특히 유종원이 永州司馬로 재직할 때 지은 10여 편의 작품은 양식적 정형성을 갖춘 본격적인 산수유기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는 고려조 진정국사의 <유사불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³⁾, 이후로는 이곡의 <동유기>, 이규보의 <남행일기>, 임춘의 <동행기> 등을 든다.⁴⁾ 그러나 유기가 본격적으로 저술된 것은 조선조에 들어와서이다. 세종조 성간의 <유관악산사북암기>를 필두로 주로 성종조를 전후한 시기의 사림 출신 문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⁵⁾ 명산만이 아닌 일정 지역, 특히 송도의 산수와 풍물을 기사한 유기 작품⁶⁾까지 더한다면 10여 편의

1) 출발 시에는 역시 친령사람인 임정숙이 함께 하였으나 임정숙은 출발한 지 며칠 만에 발에 병이 나 포기하였다.

2)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돌베개, 2001, 66쪽)에 그 자세한 일정과 노정이 간단한 지도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3)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민족사, 1995)

4)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한국한문학연구』제18집, 1995) 97-98쪽 참조

5) 이 시대 지어진 유기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륙의 <유지리산록>(1463년), 김종직의 <유두류록>(1471, <두류산기행록>이라고도 함), 남효온의 <유금강산기>(1485, <유금강록>이라고도 함), <유천왕봉기>(1487), <지리산일과>(1487), 그리고 김일손의 <속두류록>(1489, <두류기행록>이라고도 함), 이주의 <금골산록>(1502) 등이다.

작품이 이 때에 한꺼번에 쏟아진 셈이다.⁷⁾

탁영의 <속두류록>은 여러모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이 작품은 그 표제에서 보듯이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遊頭流錄>의 속편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시기적으로 보아서 <속두류록>이 <유두류록> 이후 남효온과 유호인의 작품보다 뒤에 지어졌지마는 오히려 이들 작품에 비해 <유두류록>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 작가의도와 相似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남효온의 유기가 산행이나 유람 일정에 따라 산수풍물의 실상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데 치중했다면, 도중에 접하는 산수경치에 작가 개인의 議論을 풍부하게 덧붙인 경우는 <유두류록>에 이어 <속두류록>이 그러하다. 물론 <속두류록>만이 지닌 개별성은 뚜렷하고,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표현의 다양성에서는 스승의 작품을 앞서는 측면이 있다.⁸⁾

탁영은 개혁적 성향을 지닌 초기 士林에 속하는 인물이다. 史官으로 재직시 김종직의 <弔義帝文>을 史草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로 35세의 짧은 일생을 마감하였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에 太學에 들어가 16세에 한성부 진사 初試에 합격하고, 23세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仕宦의 길에 들었다. 승문원 정자 겸 춘추기사관을 시작으로 홍문관정자 겸 경연전경, 춘추관기사관 등 주로 淸要職에 재임하였다. 17세에 밀양으로 당시 사림의 영수인 김종직을 찾아가 수학하였는데, 이후 정여창, 김굉

6) 남효온의 <송도록>(1485), 채수의 <유송도록>과 유호인의 <유송도록>(1476)

7) 이 시대 산수유기의 표제는 ‘遊記’로 된 것도 있지만 대개 ‘遊錄’으로 되어 있다. 이록의 <유지리산록>에서 처음 볼 수 있는데, 나중 나온 산수유기 작품에 이런 제명을 하게 된 것은 김종직의 <遊頭流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의 유기자들이 작품을 통해서 사림이라는 인적, 학문 계통적 연대감을 이루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양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유록’ 작품도 ‘유기’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지식산업사, 2002) 396쪽

필 등 그 門徒와의 교의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 이념을 형성해 갔다고 할 수 있다.

탁영이 주로 활동했던 성종대는 사림의 정계 진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사림은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내면수양과 치세의식을 중시한다. 이들은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강한 인적 연대를 형성해 왔는데, 특히 성종대에 이르러 김종직과 그의 문생들이 관직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개국 이후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 세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실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탁영은 성종대 사림 중에서도 詞章學에 傾斜되면서 정치적 의향을 강하게 지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특히 그는 언론활동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節義’에 입각한 뚜렷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겠다. 이런 기본적 성향은 훈구세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참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탁영은 특히 詩보다는 文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명종조 문인인 鄭惟吉은, 祖宗朝 이래 詩에 능한 사람은 누구냐는 왕의 질문에, 김종직 이후로 詩에는 李荇과 朴聞, 文에는 탁영에 비할 자가 드물다고 하였다.¹⁰⁾ 『續東文選』에 십 수편의 그의 文이 收載된 사실로도 그에 대한 후인의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의 文 전체를 논할 여유는 없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산수유기 작품인 <속두류록>은 산문문학에서의 그의 문학적 성취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성종대의 사림은 엄격히 말해 經學 편향성을 지니면서 ‘修己’에 기울어진 계열과, 詞章에 근접하면서 ‘治人’에 경도한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탁영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였다.(李秉休,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소 편, 『濯纓 金駟孫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14쪽)

10) 『明宗實錄』卷28, 17年 2月 己卯 “又問曰 我國祖宗朝以來 能詩者 何人耶 天民曰 金宗直 是也 惟吉曰 宗直學問精微 詩文皆善 宗直以後 李荇之詩善矣 朴聞之詩 金駟孫之文 亦罕有其比也”

본고에서는 우선, <속두류록>이 지니는 산수유기의 양식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이 작품의 문장 기술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문학적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이 조선조 사림 출신 문인에 의해 쓰여진 유기 작품 중 초기의 것에 속하고 있고, 또 이후 작품에 하나의 경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면, 우선 형식상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넓게는 조선조 유기 작품을 평가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겠지마는¹¹⁾, 일차적으로 <속두류록>의 문학적 성과를 포함한 문체상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작품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작가의식의 실상을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산수유기라는 특정한 문체양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탁영의 개성적 세계관의 일면을 읽어낼 수 있게 도 하겠지마는, 동시에 당대 상층문인이 지녔던 정신적 지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II. 文章記述의 方式

山水遊記는 산을 기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事象을 작품의 소재로 한 것이다. 산은, 그것을 하나의 취재 대상으로 본다면 산과 다른 환경 즉, 城邑이나 市井, 또는 다른 자연 조건과는 구별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에는 굽이쳐 이어지는 능선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으며, 나무며 풀이며 금수 등의 온갖 植生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여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마을이 이루어진다. 또 산은 세속과 다른 未踏의 신비성으로 해서 신앙의 장소가 되기도

11) 그러나 이는 본고의 과제의 범주에는 들지는 않는다. 조선조 유기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기회에 언급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다. 사찰과 비석, 불상, 돌무덤 등의 인위적 조형물들은 그러한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고 누리기 위한 것들이다. 즉, 산은 민간의 세속적 삶과 종교적 구도행위라는 무형성과, 자연 경물과 인공조형물이라는 유형성을 두루 갖춘 공간인 셈이다.

<속두류록>은 그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을 대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행 중에 목격하게 되는 景物의 형상과, 경과 중 道程의 지리적 상황이다. 도정상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소상하게 탐문하여 쓰고 있고, 또 자연경물이나 인공 조형물들의 형상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얼마를 더 가면 어떤 절이나 경관이 있고, 또 그 모양은 어떠하고 하는 식이다.

다음은 설화, 전설과 같은 무형의 문화에 대한 취재이다. 승려들에게서 傳聞한 속설이나 전설, 야담 등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崔致遠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루 수탐하여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찰이나 비문과 같은 인공조형물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나 내력 등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단속사에 관한 기사에 있어서는 절의 규모나 보유한 유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름의 견해를 덧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행록에서 유람 중에 목격하게 되는 자연경관이나 地勢, 또는 인공 조형물 등 가시적인 대상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을 기술하는 방식은 한결같지 않을 것이고, 그 차이가 작품의 개성적 특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문장 기술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문학적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종원은 그의 유기 작품인 <영주용흥사동구기>에서 유람에 좋은 경관, 즉 유기의 소재로 적절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曠’한 것과 ‘奧’한 것이다.¹²⁾ 이어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지형이 막히고 가파른 것을 뛰어넘고, 막히고 답답한 것에서 벗어나 넓따랗고 아득한 것이라면 즉 ‘曠’에 마땅하고, 언덕과 기슭에 막히고, 관목과 구덩이 아래로 기어 급히 휘돌아 만나는 것이라면 ‘奧’에 마땅하다.¹³⁾

위는 유기에서 기술하는 대상의 차이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야가 트인 높은 곳에서 산세를 조망하면서 기술하는 것을 ‘광’이라 하고, 코끝에 닿을 듯, 발부리에 채일 듯한 근경을 정밀히 묘사하는 것을 ‘오’라 칭했다고 하겠다.¹⁴⁾

<속두류록>의 기술상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상에 대해 시점을 고정시키고 정밀히 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쪽으로 10리를 행하여 하나의 큰 시내를 건너니, 곧 살천의 하류이다. 시내를 따라 남쪽으로 가서 비스듬히 돌아 서쪽으로 갔다. 대략 20리를 행하였는데 모두 두류산의 기슭이다. 들은 넓고 산은 낮으며, 맑은 시냇물과 흰 돌 같은 것들을 모두 즐길 만 하였다. 거기서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향하여 계곡을 건너는데 계곡물은 맑고 돌은 깎은 듯 하였다. 또 꺾어서 북쪽으로 가는데 한 계곡물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 또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행하여 하나의 나무다리를 건넜다. 나무가 울창하여 하늘을 볼 수 없었다. 길은 점점 높아지는데 6, 7리를 행

12) ‘游之適 大率有二 曠如也 奧如也 如斯而已’(『柳河東全集』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

13) 其地之凌沮峭 出幽鬱 寥廓悠長 則於曠宜 抵丘垤 伏灌莽 迫遽廻合 則於奧宜(위의 책, 같은 곳)

14) 洪承直은 ‘曠’을 넓은 시야큰 규모·조합의 형태를 띤 ‘廣濶의 美’라고 하고, ‘奧’를 작은 시야작은 규모·독립의 형태를 띤 ‘深奧의 美’라고 하였다.(洪承直, 『柳宗元の 游記研究』, 『中國學論叢』5, 高麗大學校中國學研究所, 1991, 13쪽)

하니 두 그루 압각수가 마주보고 있었다. 크기는 백 아람이요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¹⁵⁾

살천의 하류에서 산의 기슭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정 상의 지세를 대략적으로 기술하면서 경물의 특징을 단순하게 그려내고 있다. 시점의 움직임이 빠른 만큼 역동적면서 시원스런 느낌을 주는 기술 방식이다. 그러나 ‘낮은 시냇물과 흰 돌 같은 것들을 모두 즐길 만 하였다’, ‘계곡물은 맑고 돌은 깎은 듯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간순간 포착되는 대상의 특징은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묘출해 내는 점은 인상적이다. 간간히 사용하고 있는 비유법과 같은 수사적 기교도 돋보인다.

다음 역시 문장 기술에 있어서 표현방식의 성과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곳에는 지름길이 없었는데 단지 천 길 바위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한 줄기 물길을 이루고 산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이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물길 가운데 큰 바위가 둘러 있어 서로 첩첩이 쌓여 다리가 되었는데 이끼가 끼어 밟으면 쉬 넘어지니, 오고가는 아이들이 그 위에 작은 돌을 쌓아 길임을 표시하였다. 나무 그늘이 하늘을 가려 빛줄기가 새어 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시내를 거슬러 오르려 하니, 다섯 걸음에 한번 쉬든지, 또는 열 걸음에 한번 쉬든지 하여 조심조심 힘을 써야 했다. 시내가 다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다가 애써 대숲을 헤치고 나아가니 산이 모두 돌이었다. 돌부리와 넝쿨을 잡고 구를 듯이 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십여 리를 나아갔다. 한 깎아지른 곳을 오르니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그 별천지 같은 조화를 기뻐하여 꽃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고는, 종자

15) 西行十里 涉一巨川 乃薩川之下流也 由川而南 斜轉而西 約行二十里 皆頭流之麓也 野闊山低 清川白石 皆可樂也 折而東向 行澗谷 澗水清 石斷斷然 又折而北行 九涉一澗 又東折而行 渡一板橋 樹木蓊鬱 仰不見天 路漸高 行六七里 有二鴨脚樹對立 大百圍高參天

에게도 명하여 모두 꽃고 가게 하였다.¹⁶⁾

동상원사에서 세존암으로 가는 동안의 광경을 기술한 것이다. 첫머리의 비유적 표현이 돋보인다. 역시 경물의 세부적 묘사는 두드러지지 않고, 작가의 시점 또한 경쾌하리만큼 그 움직임이 빠르다. 대상의 가시적인 형상은 간명하게 그려내는 대신, 유산자가 겪는 형편이나 심리상태를 소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작품에서 경물을 정밀히 묘출하는 소위 ‘오’의 기술방식은 크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전체적인 경관을 개괄적으로 관망하면서 그 특징을 짚어내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지리산 전체를 유람하고자 한만큼, 미세한 것에 머물러 큰 산이 지닌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기사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속두류록>의 문장 기술에 있어서 문학적 형상미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원경을 그려내는 데 있다.

한밤중에 천지가 맑게 개이니 큰 광경이 넓게 펼쳐졌다. 흰 구름이 산골짜기에 머물렀는데, 마치 푸른 바다 물결 위에 몇몇의 포구가 있어 흰 물결이 하얗게 밀려오는 것 같았고, 산봉우리는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것 같았다. 돌무더기에 기대어 위로보고 굽어보니 오싹하니 정신이 늠름하여 몸이 아득한 태초의 위에 있고, 마음은 천지와 더불어 흐르는 듯하였다.¹⁷⁾

16) 更無蹊逕 只千丈巖溜 聚成一澗 從山上而注 如銀潢自天倒瀉 澗中巨谷巖壘 相疊爲梁 苔痕滑潤 履之易踏 童行往來者 累小石其上 以識其路 樹陰參天 光景不漏 如此泝澗 五步一息 十步一息 矻矻用力 澗盡稍北 復披苦竹中 山皆石也 攀緣磴葛 轉轉以上 喘喘十餘里 陟一崔嵬 躑躅花欄開 喜其別造化 折簪一花 分命從者 皆挿而行

17) 夜半 天地開霽 大野洪龐 白雲宿於山谷 如滄海潮上 多少浦口 白浪驅雪 而山之露者 如島嶼點點然也 倚壘俯仰 口然神心俱凜 身在鴻濛太初之上 而襟懷與天地同流矣

밤중에 천왕봉 정상에서 내려다 본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넓은 바다와 같이 광활하게 열려 있는 지리산의 광경을 그리고 있다. 산허리를 휘감고 있는 넓은 구름띠를 흰 물결이 이는 바다로, 또 그 위로 솟아난 검은 봉우리를 다도해의 섬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굽어보는 자신은 태초의 아득한 시간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정신이 천지와 합일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문학적 비유법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든지 이를 내면의 심리와 조응시키는 방식이 독특하다. 소위 ‘광’의 기술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이다. 탁영은 이 기사에 이어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감격을 기술하고 있다.

여명에 해가 양곡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니, 푸른 공간에 잘 덮은 구리거울이 움직이는 듯하였다. 사방 만리를 조망하고, 대지의 끝까지 바라보니 못 산들이 개미언덕 같았다. 묘사하자면 가히 昌黎의 <南山詩>에 어울릴 것 같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공자께서 동산에 오르신 것과 들어맞을 것이다. 마음의 회포가 일어나 아래로 세상을 굽어보니 감개함이 따른다.¹⁸⁾

역시 광막한 대지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위의 표현에서처럼, 탁영은 시야에 들어오는 장대한 원경을 昌黎 韓愈가 지은 <남산시>의 표현 방식에서 빌어오고 싶어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탁영이 언급한 <남산시>는 비유의 방식으로 중국 남산의 모습을 5언구로 쓴 것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나라 유산시의 典範이 된 작품이다.¹⁹⁾ 특히 탁영은 한유의 문장 표현을 평소에 좋아했고 또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주위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²⁰⁾ 중

18) 黎明 觀日出暘谷 晴空磨銅徘徊 四望萬里 極目大地 群山 皆爲蟻封蚯垤 描寫則可會昌黎南山之作 而心眼則直符宣尼東山之登矣

19) 李章佐, 「<南山詩>의 詩語 研究(上, 下)」(『中國語文學 3, 4卷』, 嶺南中國語文學會, 2003, 2004) 참조

국 사람들조차도 그를 ‘동국의 창려’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한다.²¹⁾ 이 작품에서 특별히 경물을 묘사하는 데 드러나는 비유적 표현이나, 원경을 조망하는 듯한 기술 방식은 한유의 <남산시>에서 배운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남산시>는 작품 전체에서 비유법을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수사적 기교가 탁월하다. <남산시>에서 그러하듯이, <속두류록> 역시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정교한 이미지를 그리기 보다는, 전체를 관망하는 중에 호한하고 장대한 느낌의 선이 굵은 표현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겠다.

<속두류록>에서는 자연 경물을 묘사한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정상의 인문지리적 상황을 폭넓게 기사의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유두류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의 다양한 정도나 기술상의 정밀성으로 따지자면 스승의 것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겠다. 취재대상을 자연 경물보다는 주로 인문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는 <유두류록>과 이 작품 이외에 후대의 유기작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탁영은 위와 같은 대상을 취재하여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일면을 엿보인다. 즉, 그는 철저히 분석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역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유기작품과 구별되는 점이다. 탁영은 사실의 객관적 진술을 넘어 이를 다시 평가하고 분석하여 나름의 결론을 얻고자 하고 있다.

임정숙이 말하기를 “이곳은 점필공이 군을 다스릴 때, 비 오기를

20) 탁영은 스승인 김종직에게서 한유의 문을 배웠다.(안신, <行錄>, 『佔畢齋文集』附錄1‘…濯纓 木溪子 請讀古詩 公手授韓文…’) 남효온은 탁영이 급제하자 시를 지어 축하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스승이 추천할 자 그대 아님 누구겠나 / 한유문에는 밝은 달같이 이름 높네(吾師推許孰如君 一月明高吏部文)’라 하였다.

21) ‘華人至稱以東國之昌黎’(宋時烈, <濯纓先生文集序>, 『濯纓集』)

빌고 재계하던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용유담 주변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마치 밭이랑을 갈아놓은 듯 완연한 자취가 있었다. 또 바위가 항아리 같고 가마솥 같은 것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백성들은 용의 그릇으로 생각하였다. 산골짜기의 물이 급하여 물 속의 돌들이 굴러서 서로 닳아 오래되어 그러한 모양으로 된 줄 알지 못하고 있다. 심하구나, 백성들이 일을 살피지 않고 허탄한 말을 믿기를 좋아하는 것이.²²⁾

龍游潭 주위에 있는 바위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물굽이의 이름이 ‘龍游’이고 또 바위의 모양이 항아리나 가마솥처럼 생겼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용이 사용하던 그릇으로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탁영은 그것을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일축하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찾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옮기지 않고 그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태도이다.

산을 오르면서 목격하게 되는 경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거나 여가에 대한 탄상의 느낌을 옮기는 것은 기행문학에서 일반적인 서술방법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처럼 어떤 事象에 대한 작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작가의 내면세계를 우의하여 표현하거나, 또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관련시켜 해석하는 등의 설리적, 의론적 견해를 덧붙이기도 한다. 유종원은 그의 유기에서 영주사마로 폄적된 후 실의에 빠져 지내던 중의 내면의식을 산천의 景概에 부쳐 표현하였다. 그러나 김종직을 위시한 조선 사람의 도학적 세계관으로서는 정치적 피해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굴곡을 유로하는 서술방식은 결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²³⁾

22) 貞叔云 此佔畢公爲郡時禱雨齋宿處也 潭石鱗鱗 如田之畛畊 多宛然之迹 又有石如釜如金鼎類者 不可勝紀 民以爲龍之器皿也 殊不知山澗湍急 水石流轉 相磨之久 而至於成形 甚矣 細民之不料事而好誕說也

23) 이혜순 등 공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집문당, 1996) 25쪽 참조

김종직의 <유두류록>에는 풍부한 의론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종원식의 굴절된 내면의식을 우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숙두류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그것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작품 창작의 의도가 드러날 것이다

산수 묘사와 의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탁영이 다음에서 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래 기록은 탁영이 睡軒 權五福의 시집인 <關東錄>에 부친 후기이다.

...(권수현의)관동록을 얻어 읽어 보니, 아! 그 기록한 것이 어찌 다만 ‘詩觀’뿐이겠는가? 바람이 수레를 흔들 때는 법을 잡고 흔들리지 않음을 생각하고, 간절한 정으로 산을 오를 때는 나라 일로 아버지를 모실 겨를이 없음을 생각한다. 그 불인 바나 생각하는 것이 강개격절함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많은 것이 옛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안개와 달을 희롱한 것을 일로 삼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²⁴⁾

‘詩觀’은 문학적 수사나 경물의 묘사와 같은 敍景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수현의 시는 자연을 보며 부모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곧 ‘안개나 달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경물의 묘사나 탄상에 그치는 ‘玩物喪志’에 빠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탁영은 경물을 대하되 그 아름다움을 화려한 수사로 읊는 정도의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논구하는 것이 자연을 언어적 형상으로 환치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고 있었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것이 소소한 개인의 감

24) 得關東錄而讀之 噫斯錄也豈但詩觀乎哉 風振乘驄 執法而不撓 情切陟岵 將父而未遑 其所寓興抽思 無非慷慨激切 多古人埋朱輪望白雲之懷 而不少以嘲弄烟月爲事(『濯纓集』卷一, <題權睡軒關東錄後>)

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소 公的인 주제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속두류록>은 경물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 표현을 동원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문학적성은 유려한 언어적 형상미보다는 자연 경물과 인문적 事象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이를 내면의 지적 인식과 적절하게 조응시키는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탁영이 사람의 일인으로서 소위 詞章으로 일컬어지는 문학적 형식미를 인정하기는 하되, ‘載道之器’로서의 문장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그러한 이념적 의도를 포함하여 작가의 다양한 정신적 지향을 두루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각적 각도에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I. 修己治人の 道學的 理念

본 작품의 작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탁영이 성종조의 개혁적 정치의식을 지닌 사람에 속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즉, 그의 산행은 유가의 가르침, 특히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의 일단을 실천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遊山은 物我를 객관에서 성찰함으로써 내척을 다지는 수양행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연적 질서를 통해 인간 내면의 조화를 궁색하려 했던 성리학적 사유태도는 산의 자연을 경험하고 여기에 오르는 행위를 곧 심성수양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유산행위는 그 자체가 학문적 탐구 방식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산은 세속과

가장 대립되는 원시적 공간임으로 해서 이를 통해 인간존재의 본질이나 우주적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 사변의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수목과 산천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도의 본체를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집 소재 기문인 <二樂樓記>의 부분으로 산수유람에 대한 그의 인식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직 仁者 연후에 능히 ‘樂山’할 수 있고 오직 智者 연후에 능히 ‘樂水’ 할 수 있소. ‘석 달을 인을 어기지 않으면 거의 인에 가까울진저’라고 한 것은 백세 후에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지혜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한갓 산수간에 정을 내달리는 것뿐이니 스스로 속이는 것이 가깝지 않겠소. 무릇 사람이 인과 지의 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나 능히 인과 지의 단서를 채우는 사람은 드무오. 능히 인·지를 채우는 것은 내 본분 밖의 것이 아니요. 산의 고요함을 체득하면 마음이 옮겨가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체득하면 막히지 않소. 일심의 덕을 편안히 하여 만물의 변화를 두루 겪으면 즉 인과 지 둘의 진정한 즐거움을 내 능히 겸할 수 있는 것이요.²⁵⁾

위의 내용은 기문에서 탁영이 단양 군내 정자에 올랐다가 동행한 군수 黃璘에게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의 ‘樂山樂水’ 기사²⁶⁾를 빌어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산수를 즐기는 단순히 놀이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고 인·지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산의 고요함을

25) 『濯纓集』卷三, <二樂樓記> ‘惟仁者 然後能樂山 惟智者 然後能樂水 三月不違者 殆庶幾於仁 百世可知 可謂智未及於此 而徒馳情於山水 不幾於自誣乎 夫人莫不具仁智之性 而鮮能充仁智之端 能充其仁智 非吾分外之物 體山之靜而不遷 體水之動而無滯 安一心之德 周萬物之變 則二者之真樂 吾得而兼之矣’

2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論語』, <雍也>)

체득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체득하면 막히지 않는다고 한 것은 『논어』 기사에 대한 朱子 註의 인용이다.²⁷⁾ 그렇지 않으면 단지 산수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산수간에 정을 내달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으니, 소위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것이다. 산수를 통해서 내면을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가시적 물상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유학자가 갖추어야 할 성찰의 태도, 즉 학문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겠다.

다음은 <속두류록>의 내용이다.

오후에 산음현에 들러 환아정에 올라 기문을 열람하였다. 북쪽으로 맑은 강을 대하니 ‘가는 것은 저 물과 같으니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고 한 공자의 말씀이 생각났다. 잠시 머리를 붙이고 졸다가 일어났다. 아, 마을을 택할 때 어진 마을에 거처하는 것은 지혜이고, 살고자 할 때에 나쁜 물을 피하는 것은 충명함이다.²⁸⁾

山陰縣 소재의 정자인 환아정에 올라 마을을 굽이쳐 흐르는 물 줄기를 보고 소회를 적은 것이다. ‘有逝者悠悠之懷’는 공자가 시냇가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逝者如斯夫 不舍晝夜’²⁹⁾라고 말한 것을 읊었다. ‘擇而處仁里’ 云云은 역시 공자의 말로, ‘里仁 爲美 擇不處仁 焉得知’³⁰⁾라고 한 것을 빌어왔다. 모름지기 탁영은 자연의 경물을 대할 때조차도 성현의 가르침을 상고하는 유학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망각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27) 知者 達於事理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仁者 安於義理而厚重不遷 有似於山 故樂山 動靜 以體言 樂壽 以效言也 動而不括 故樂 靜而有常 故壽

28) 吾投山陰縣 登換鵝亭覽題記 北臨清江 有逝者 悠悠之懷 少欹枕而覺 噫 擇而處仁里 知也 棲而避惡水 明也 縣號爲山陰 而亭扁而換鵝 其有慕於會稽之山水者乎 吾輩安得於此永繼東晉之風流乎

29) 『論語』, <子罕>

30) 『論語』, <里仁>

탁영의 유학자적 학문 성찰의 태도는 동행한 정여창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정여창과의 대화는 산행 중 경험하는 사상에 대해 가벼운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학문적 이해에 관련된 것이거나 유가의 가르침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그 하나이다.

승려가 “산 위의 꽃과 잎은 오월이면 처음 피었다가 6월이면 마르기 시작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백옥에게, “봉우리가 높으면 하늘과 가깝소. 마땅히 먼저 양기를 얻을 것인데 도리어 뒤에 꽃이 피는 것은 왜이요?”라고 물었다. 백옥이 말하기를 “대지는 하늘에서 팔만리나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행하여 며칠 만에 산꼭대기에 이르렀소. 산의 높이는 대지로부터 백 리도 채 되지 못하는데 그 하늘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되, 먼저 햇빛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뚝 높이 섰으니 바람만 먼저 받을 따름이요.”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만물이 높은 것을 꺼릴 것이요. 그러나 높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낮으면 또 도끼에 찍히는 화를 만나니, 장차 무엇을 택하여야 하겠소.”라고 하였다.³¹⁾

높은 산 위의 초목이 평지보다 빨리 시드는 이유에 대해 탁영이 정여창에게 묻고, 정여창이 이에 답하는 내용이다. 의문을 갖는 쪽이나 답을 하는 쪽이나 모두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어 글하는 선비의 성찰의 자세가 돋보인다.

탁영은 유산을 학문 궁구의 과정으로 보는 한편, 그것을 治世治民의 意氣를 다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유학자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공자의 ‘登泰山小天下’의 句로 집약된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의 작음을 보았다는

31) 僧云 山上花葉 五月始盛 六月始彫 余問伯勗 峰高近天 宜先得陽氣而反後何也 伯勗曰 大地距天八萬里 而吾行數日而到上峰 峰之高距地不滿百里 則其距天不知其幾也 不可言先陽 特孤高先受風耳 余曰 凡物之生 其忌高哉 然高不免風雨之萃 卑且遭斧斤之厄 將何擇而可乎

『논어』기사인데, 이를 후인들은 학문을 닦는 자가 산에 올라 천하
경륜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의기를 다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공자의 ‘등태산...’ 句는 우리 유학자의 산행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³²⁾ 성종조에 이르러 바야흐로 현실 정치 무대에 나서
기 시작했던 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유산을 통해서 지향하
고자 했던 구체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종직 역시 <유두류록>의 천왕신모에게 올린 告由文의 첫 부분에
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저는 일찍이 공자께서 대산에 올라 세
상을 보신 것과, 한유가 형산을 유람한 뜻을 사모하였습니다.”³³⁾라
고 기록하고 있다.

탁영은 천왕봉 정상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맞으면서 광활한
대지를 굽어보는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명에 해가 양곡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니, 푸른 공간에 잘 닦은
구리거울이 움직이는 듯하였다. 사방 만리를 조망하고, 대지의 끝까지
바라보니 못 산들이 개미언덕 같았다. 묘사하자면 가히 창려의 <남산
시>에 어울릴 것 같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공자께서 동산에 오르신
것과 들어맞을 것이다. 마음의 회포가 일어나 아래로 세상을 굽어보니
감개함이 따른다.³⁴⁾

산 아래 펼쳐진 민생의 현장을 조감하면서 청년 유학자로서 修
齊治平의 의기를 다졌음직한 술회이다.

위 <유두류록>에서 ‘한유가 형산을 유람한 뜻’이라고 한 것은,
한유가 衡岳(南山)에 올라 지은 7언시인 <謁衡岳廟遂宿嶽寺題門
樓>에서 형산의 신령에게 정성과 흠모의 정을 드러낸 내용을 두고

32) 이혜순 외, 앞의 책, 24쪽

33) 某嘗慕宣尼登岱之觀 韓子遊衡之志

34) 黎明 觀日出暘谷 晴空磨銅徘徊 四望萬里 極目大地 群山 皆爲蟻封蚯垤 描
寫則可會昌黎南山之作 而心眼則直符宣尼東山之登矣

말한 것이다. 김종직이 천왕신모에게 제를 올린 것도 이러한 뜻에 따른다는 뜻이다.

名山の 신령에게 祭를 올린다는 것은 유학자가 治民의 정성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천자가 태산에서 封禪하는 것도 하늘의 덕을 자신을 통해 천하백성에게 베푸는 공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자 역시 명산대천의 신령에게 제를 올려 치세치민의 정성을 하례하고 그 장차의 뜻을 감응받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역시 탁영이 천왕성모에게 지어 올린 고유문의 일부를 보자.

옛날 선왕이 상하의 구분을 정하여, 오악과 사독은 천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들은 봉지 내의 산천에만 제사를 지내며, 공경·대부는 각기 해당되는 제사만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명산대천에서 사당에 이르기까지 그 아래를 지나는 모든 문인이나 나그네는 반드시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올리니, 신에게 고하는 것이나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들입니다. 두류산은 먼 바닷가에 있는 산으로 수백 리나 펼쳐져,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진산이 되었으며, 그 아래로 수십 개의 고을이 둘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는 반드시 크고 높은 신령이 있어서 구름과 비를 일으키고 정기를 쌓아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³⁵⁾

위 고유문의 내용은 호남, 영남의 주재신으로서, 즉 운우를 조성하고 백성에게 복록을 베푸는 주체로서의 神山인 지리산의 복덕을 하례하여 제사를 받든다는 것이다. 역시 치세의 의지를 지닌 문사로서 민생을 헤아리고자 하는 태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유산의 과정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고 민고를 헤아리고자 하는 이

35) 昔先王制上下之分 五岳四瀆 唯天子得以祭之 諸侯只祭封內之山川 公卿大夫 各有所當祀也 降及後世 名山大川 至於祠廟 凡文人行子之出其下者 必以行具而奠 有告焉有所祈焉者 皆是也 維頭流 邈在海邦 磅礴數百里 作鎮湖嶺二南之界 環其下數十州 必有巨靈高神 興雲雨儲精英 以福于民無窮已也

상과 같은 탁영의 뜻은 그래서 작품 전반에 두루 드러나고 있다.

전하는 말에, 두류산에는 감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많아 가을 바람에 열매가 떨어져 계곡을 가득 채우는데, 이곳 승려들이 이를 주워 배를 채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허망한 말이다. 다른 초목도 오히려 잘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과실이겠는가? 해마다 관청에서 갓을 요구하여 백성들이 항상 산지에서 이를 사서 공물에 충당한다고 한다. 모든 일에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³⁶⁾

잠시 의공과 함께 앉았는데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물으니 말하기를, “관청에서 은어를 잡는데 물이 불어 그물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냇가 산초나무 껍질로 고기를 질식시켜 잡는데, 중들을 채측해 그것을 구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중들에게 살생을 하는 물건을 대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였다. 나 역시 한참 얼굴을 찌푸렸다. 오대산의 백성들이 이정의 학대를 면하지 못하더니 또 여기서는 고기를 죽이는 물건을 대라고 하니 산 속도 역시 편하지 못하구나.³⁷⁾

절 앞의 밤나무가 모두 도끼에 잘려 넘어져 있었다. 승려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 중에 밭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로 금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탄식하고 말하기를 “높은 산 깊은 계곡에도 밭을 갈아 경작하려 하니, 나라의 백성이 많아진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들을 넉넉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⁸⁾

36) 人傳頭流多柿栗海松 秋風實落 填滿溪谷 居僧取而充飢者 妄也 他草木尙不遂其生 況於果實乎 每歲官督海松 民常轉質於產鄉以充貢云 凡事耳聞 不如眼見者類此

37) 方與義空少坐 忽有剝啄聲 問之 云 官捕銀鯽 水漲不可施罟 當取川椒皮葉毒魚 趣寺僧取給 僧曰 資殺生之物 奈何 余亦嘖蹙久之 五臺之民 既不免里正之暴 雙磎僧 又將供毒魚之物 山林亦不安矣

38) 寺前栗樹 皆爲斧斤斫倒 問僧胡然 僧曰 民有欲田之者 禁亦不能 余歎曰 太山長谷 耕墾亦及 國國民既庶矣 當思所以富而教之也

첫 번째 인용문은 지리산에는 여러 과실이 많아서 이로써 끼니를 때운다고들 하는데 실상을 보니 전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의 특산물인 잣을 공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리산의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다른 지방에서 구입하여 정한 양을 충당해야 하는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탁영의 이 지리산 유산이 그가 仕路에 든지 4년 쯤 되는 해로써, 그동안은 주로 연관직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한다면 백성들의 이러한 실제적인 사정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문인지식인으로서 민생을 현장을 직접 살필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인용문은 직접적으로 역시 관리들의 무능과 학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승려들로 하여금 은어를 잡는 데 동원한 것은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계율을 어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역을 부담케 하는 실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인용문은 잣 사로에 든 초년 관리로서의 치세치민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밭을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밤나무를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즉, 경작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수가 늘어 가면서 심산유곡에까지 개간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탁영은 그 자신 상류지배계층의 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지방관아의 실정을 객관적인 비판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그가 비록 산행을 하기 전까지 중앙 연관직을 역임했다 하나, 여전히 실제의 대민정치는 훈구세력이 독식하고 있는 당대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우회적으로 당시 정치적 실세인 훈구세력의 정치적 역량과 성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인용문에서 백

성을 ‘넉넉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한 대목에는, 사림으로서 실제 정치를 담당한다면 펼쳐보이고자 하는 치세의 이념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탁영이 유산 중 유학자로서의 의론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불교에 대한 태도이다. 지리산에는 봉우리 등의 이름이 불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수많은 사찰 암자 등 불제자의 수행도량이 골마다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탁영은 유산 과정에서의 숙식은 대개 사찰, 암자 등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리산이 온통 불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새벽녘에 가는 비가 내려 도롱이를 쓰고 길을 나섰다. 광대가 생황과 피리를 불면서 앞에 서고, 석해가 길잡이가 되어 마을을 나왔다. 돌아서 바라보니 물이 산을 둘러쌌는데, 택지가 깊고 형세가 막혀, 진실로 은자가 머물만한 곳이었다. 승려들의 도량이 되고 高士의 땅이 되지 못했으니, 아깝다.³⁹⁾

그는 암자나 사찰, 또는 불교의 유적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시각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속사에 들렀을 때 고려의 인종과 의종이 대감국사에게 보낸 서찰이 보고는, ‘이들이 禪師와 부처에게 이처럼 정성을 기울였건만, 인종은 이자겸에게 곤욕을 당했고 의종은 거제에 유배되는 화를 면치 못했으니, 부처에게 아부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 됨이 없음이 이와 같다’⁴⁰⁾라고 하여 불교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39) 黎明 細雨絲絲 簞笠以行 伶執笙笛先路 而釋該爲鄉導出洞 回望則水抱山圍 宅幽而勢阻 眞隱者之所盤旋也 惜其爲縑流之場 而不與高士爲地也

40) 又致勤於禪佛如是 而仁宗困於李資謙 毅宗未免巨濟之厄 佞佛之無益於人國

그러나 탁영은 이 작품에서 굳이 불교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심산유곡에서 세속과 인연을 끊은 채 용맹정진하며 불도를 구하는 수행승려의 모습을 통하여 유학자의 실상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곳에서 나와 한 걸음에 금대암에 도달했다. 한 승려가 나와 물을 길고 있었는데, 나와 백옥이 성큼 들어섰다. 뜰 가운데는 모란 몇 줄기가 반쯤 꽃이 지긴 했으나 매우 붉었다. 누더기 승복을 입은 20여 승려가 막 가사를 겹쳐 입고 범패를 하며 서로 따르고 있었는데 서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빨랐다. 내가 물으니 정진도량이라고 하였다. 백옥이 그것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그 법이 정밀하고 잡된 것이 없어 나아가기만 하고 물려감이 없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처의 공덕을 지으려 하는 것이오. 혹 줄거나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 중에 민첩한 자 한 사람이 나무로 된 긴 판자로 두들겨 경계하여 졸지 못하도록 하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부처가 되는 것도 역시 수고롭도다. 유학자가 성인이 되려는 공덕이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나아감이 없겠소”라고 하였다.⁴¹⁾

향적사 옆에 큰 나무 수백 개를 쌓아 놓았다. 승려에게 무엇에 쓰려는지 물으니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호남의 여러 고을에서 구걸하여 물길로 섬진강까지 이르러 하나하나 실어온 것으로 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한 지 이미 6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 말하기를 “우리 유학자가 학궁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오”라고 하였다. 석가의 가르침이 서역으로부터 오매 일반 백성들이 그를 받들기를 공자보다 더 하니, 백성의 사교를 탐닉함이 정확을 믿는 돈독함 같지 못하다.⁴²⁾

家 如此夫

41) 出一步到金臺菴 一僧出汲 余與伯翳 率爾而入 庭中有牧丹數本半謝花甚紅 百結衲子廿餘 方荷袈裟 梵唄相逐 回旋甚疾 余問之 云 精進道場也 伯翳頗解之曰 其法精而無雜 進而不退 晝夜不息 以爲作佛之功 稍有昏惰 其徒中捷者一人 以木長板 拍而警之 使不得憊睡 余曰 爲佛亦勞矣 學者於作聖之功 做得如此 則豈無所就乎

42) 香積傍 有大木數百章積焉 問僧何爲 僧曰 老子行乞於湖南諸州 漕致蟾津

위에서 첫 번째 것은 탁영 일행이 금대암에 이르렀을 때 승려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의 소회를 적은 기사이다. ‘精進道場’이라고 한 수행처에 대해 정여창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불도를 닦는 정성과 고행을 설명하였다. 탁영은 이를 학문을 닦는 태도에 비겨 유학자가 오히려 불도를 구하는 수행 승려에 비해 그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부족하여 성취함을 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불제자들의 수행 노력에 대한 그의 감탄은 위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다. 향적사에 들렀을 때 곁에 쌓여 있는 수백 개의 목재를 두고 한 노승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노승은 절을 새로 지으려고 6년을 호남 여러 고을에서 재목을 구걸하여 섬진강까지 배로 실어 나르고 또 그것은 다시 산속에까지 운반하여 모아두었다고 하였다. 탁영은 수행도량을 지으려는 노승의 정성과 노력에 크게 감동한 것 같다. 그리고 유학자들은 그렇게 학문을 강론하는 곳을 마련하려는 정성이 불자의 그것에 대해 부족함을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공자를 받들지 않고 부처를 따르는 것이 그러한 정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탁영은 지리산의 산행과정을 기술하면서 이를 통해 유학자의 학문하는 노력과 내면을 수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림의 일인으로서 치세치민의 의기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유학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문인지식인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충실히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림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철저했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산은 이처럼 현실의 한 연장으로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실을 객관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의식공간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는 다음에서 보기로 하겠다.

寸寸而輸 欲新此寺 已六年矣 余曰 吾儒之於學宮 其未矣 釋氏之教 覃自西域 愚夫愚婦 奉之軼於文宣王 民之耽邪 不如信正之篤矣

IV. 山水樂과 逆說的 志向

이상 <속두류록>에서 탁영은 지리산의 유산 체험을 修己治人의 실천적 한 방식으로 이해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다.⁴³⁾ 산을 오르는 행위 자체를 학문 연마의 한 과정, 또는 민생의 살피고 치세의 의기를 다지는 기회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적 지향과는 별개로, 산은 현실과 유리된 공간, 또는 對極에 위치하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인학사들이 산에 오르는 목적 중의 하나가 시정과를 구별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흥취를 도우려는 데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세간의 번잡과 소요를 피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한가롭게 노닐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선비라면 이런 고양된 흥취를 빌어 詩想을 다 잡고 시 한 수 읊조리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자연의 풍광에 침혹하여 삼라만상이 제공하는 근본적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소위 ‘완물상지’의 혐의를 쓸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산수유기에는 이런 작가의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탁영의 경우를 보기 위하여 <속두류록>의 전반 첫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선비가 세상에 나서 조롱박처럼 한 곳에 매여 사는 것은 운명이다. 천하를 두루 다녀 그 지닌 것을 기를 수 없다면 나라 안의 산천이라도 모두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일이란 잘 어긋난다. 항상 뜻이 있더라도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열에 여덟, 아홉은 된다. 내가 처음 진주의 학관이 되기를 구하였는데, 그 뜻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루의 수령이 된 갈치

43) 이혜순 등 공저, 앞의 책, 23쪽

천의 마음이 또 丹砂에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두류산은 진주의 경내에 있다. 진주에 도착한 후 매일 두 켄레 나막신을 마련해 두었으니 두류의 구름과 노을, 원숭이와 학이 모두 나의 단사이기 때문이다.⁴⁴⁾

위는 작가가 지리산을 오르기를 오랫동안 계획하였지마는 기회를 쉬 잡을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술회한 내용이다. 탁영은 지리산을 오르기 위해 일부러 진주의 학관으로 자청해 왔다고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진주에 온 것이었으나, 갈홍이 구루의 수령이 된 것이 연단술을 익히기 위한 다른 목적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탁영의 실제 속마음은 유산의 뜻을 이루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선수련이 갈홍의 목적이 되었듯이 자신은 두류산의 烟霞, 猿鶴이 그것이라고 하였다. 구름이며 노을, 원숭이며 두루미는 산이 지닌 자연 환경과 식생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전통 산수화의 소재로도 즐겨 쓰였다. 즉, 탁영은 산수화폭이 담고 있는 수려한 경물과 같이 지리산이 두루 품고 있는 풍광을 즐기고,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는 식생을 지근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리산 산행에 대한 소망을 높여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뒤에 또 비가 내렸다. 내가 장난으로 말하기를, “조물주도 역시 마음이 있는가. 산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시기하는 바가 있는 것 같소”라고 하였다. 백옥이 말하기를 “어찌 산의 신령이 풍류객을 오래 붙잡아 두려는 계책인 줄 누가 알겠소?”라고 하였다. 이날 밤 다시 날이 개었다. 밝은 달빛이 흐르니 푸른 산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44) 土生而匏瓜一方 命也 既不能遍觀天下 以畜其有 則域中之山川 皆所當探討者 惟其人事之喜違也 常有志而未副願者 什居八九 余初求爲晉學 其意則便養也 而句漏作令 葛稚川之心 又未嘗不在於丹砂焉 頭流在晉之境 既到晉則日理兩屐 頭流之烟霞猿鶴 皆余之丹砂也 二載阜比 徒重腹便之譏 則引疾于鄉以遂徜徉之志 而足迹未嘗一及于頭流 豈非素志之未副者也 然頭流不敢忘懷也 每與曹太虛先生共卜一遊 而太虛簪纓有累 余阻於道途之往來 未幾 太虛丁內艱而去天嶺矣

능선이며 계곡이며 마치 仙人 羽客이 너풀너풀 와서 춤을 추는 듯하였다. 백옥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과 밤의 기운이 여기에서는 모두 찌꺼기가 없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나의 어린 종이 다소간 피리를 불 줄 알기에 시켜 불게 하였다. 죽히 빈 산을 울렸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 하다가 밤중에 나누어 잠자리에 들었다.⁴⁵⁾

지리산 산행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풍류를 즐기는 태도가 잘 드러난 대목이다. 탁영의 산행은 국록에 매인 관리로서의 책무와 학문적 연찬에서 오는 수고로움을 벗고 정서적 유일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쾌감을 맛보려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산수자연에서의 자약불기한 삶에 대한 깊은 취향과 습벽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음은 문집에 소재한 한편 글의 일부이다.

나는 남과 다른 점이 없으나 어려서부터 다만 부도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 중에 오히려 취하는 바가 있으니, 그 도와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얽매임을 풀고 높은 산에 깃들며, 세상을 피하되 근심이 없는 바를 취하였다.⁴⁶⁾

탁영이 평소 佛徒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들이 세속의 얽매임을 벗고 산 속 깊은 곳에 처하여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만을 취하고자 했다는 술회이다. 지리산 산행도 진작부터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탁영은 산수에 드는 것을 신선적 소요나 도가적 방일과 연계시

45) 少選又雨 余戲曰 造物其亦有心者歟 潛形山岳 似有所猜 伯勗曰 安知山靈久關騷客爲計耶 是夜復晴 皓月流光 蒼顏全露 稜稜壑谷 若有仙人羽客來舞翩翩也 伯勗曰 人心夜氣 於此都無查滓矣 余之小蒼頭 頗調謔策令吹之 亦足以傳空山之響 三人相對 夜分方寢

46) 余無以異於人者 自齠齔時 獨不喜浮屠氏 於不喜之中 猶有取焉 非取其道取其人焉 取其解外膠棲高山 遁世而無悶也(『濯纓集』卷二, <贈上人雲峯序>)

키려는 의도를 평소부터 지니고 있었음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문집 소재 기문인 <조현당기>의 일부분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격이 林泉을 좋아하였다. 자라서 영남을 유람하니 항상 최문창이 당으로부터 돌아와 신라 말에 뜻을 잃고 좋은 산과 맑은 물을 탐력한 곳이 한 둘이 아니다가 그 마친 곳이 곧 가야산이다. 그런 즉 이 산은 반드시 뛰어난 경치에 세속을 끊고 신선으로 노니는 자가 반드시 머물렀다. 문창의 백세 뒤에 반드시 高人 道士가 있어, 그 중에서 머물며 사니 혹 그 이름은 잊었다. 한 번 노닐어 그 사람에겐 묻고자 하나 더욱 세상일에 얽매어 세상 먼지 속에서 허덕이다가 원하는 바를 저버린지 이미 세월이 흘렀다.⁴⁷⁾

탁영은 위 기문에서 가야산 조현당이라 題한 누각을 경영하고 그 주인으로 행세하는 한 은둔불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탁영은 어려서부터 산이며 물을 좋아하였다고 했다. 그 이유를 신라말 귀국 후 세상일에 뜻을 잃고 좋은 산과 맑은 물을 신선처럼 유력했던 최문창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로에 들어 국사에 참여하면서 겪는 노고를 잠시 벗기 위해, 최문창이 소요자적했던 것처럼 선경에 사는 신선의 귀숙처를 찾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학문 연마의 어려움이나 재관문사로서 치세의 수교로움을 잠시 벗어나거나, 또는 유학의 엄격한 도의와 규례에서 오는 정서적 경직을 일시나마 풀고자 하는 자들이 도가의 이러한 피세은둔의 사상을 빌어 산이 주는 유일과 풍류를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에서도 도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대적인 경향이 적었던 것은 도가가 지닌 이러

47) 余自髫髻 性癖林泉 壯遊嶺南 常念崔文昌至自唐 失意羅季 其所探歷佳山好水 不一其所 而終也 乃伽倻山 則斯山也 必有奇勝絕倫 而仙逸者留焉 文昌百歲之後 亦必有高人道士 棲遲偃仰於其中 而或泯其名焉 欲一遊而問其人 蓋世網繫人 役役塵埃 幸負所願者 已綿歲月(『濯纓集』卷三, <釣賢堂記>)

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드디어 내가 정백옥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대와 더불어 악전의 무리를 맞아다가 홍곡이 나는 것보다 높이 날며, 몸은 세상 밖에 놀며, 눈은 태초의 수를 다 꿰뚫어 그로써 氣가 다하는 때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정백옥이 웃으며 말하기를 “불가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⁴⁸⁾

암자의 승려가 말하기를 “매년 늦은 여름 몸은 푸르고 머리는 붉으며 긴 다리를 지닌 새가 향로봉 소나무 위에 모여들었다가 날아서 아래로 내려와 용추에서 물을 마신 후 바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곳의 승려들이 여러 번 이를 보았는데 이 새가 곧 청학이라 합니다.” 하였다. 어찌 하면 이를 잡아 곁에 두고 거문고로 짚할 수 있을까?⁴⁹⁾

위의 두 인용문은 탁영이 유산을 통하여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고 정신적 여유로움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특히 신선적 소요행위로 표현한 대목이다. 첫째 것은 신선으로 알려진 악전처럼 물외에서 자방하고자 하는 뜻을 정여창에 대한 질문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였다. 특히 『장자』의 <소요유>편에서 볼 수 있는 광막한 무하유지향에서 정신적 고양을 누리는 진인의 경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것은 선경에서 볼 수 있는 청학과 짚하여 신선의 풍류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옛 사람들 중에는 선도수련과 같은 도가적 종교행위의 일환으로 산을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단술을 수련하는 도사나 신선방사와 같이 종교적 구도의 목적으로 산에 들었다면 이는 아예 산을 삶의 근거로 하는 경우로, 산을 현실과 대응되는 위치에서

48) 遂語伯翳曰 安得與君邀偓佺之輩 凌鴻鵠之飛 身游八紘之外 眼窮一元之數 以觀夫氣盡之時耶 伯翳笑曰 不可得矣

49) 菴僧云 每歲季夏 有青身赤頂長脰之禽 集香爐峰松樹 飛而下 飲於湫 卽去 居僧屢度見之 是青鶴云也 安得羅而致之 置一琴爲伴耶

‘일시적으로’ 오르는 문인학사와는 차이가 난다. 즉, 선비 중에는 인간 세상에 뜻을 잃고 일신을 숨기거나 정치적 화를 피하고 성명을 보전하거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도가적 수련을 구실로 산에 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쑤의 죽림칠현이 보여 준 피세은둔의 처세 방식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입산 행위는 대개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불우에 대한 저항을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탁영이 작품에서 고운 최치원을 다루는 태도는 이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고운에 대한 이야기는 작품의 곳곳에 언급되어 있다. 기행 중 접하게 되는 그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듯하다. 단속사와 쌍계사에 남아 있는 자취를 면밀히 상고하고 있고, 신흥사 요장로의 말을 빌어 그에 대한 설화까지도 장황하게 싣고 있다. 요장로가 진술하는 것으로 기록된 설화의 내용은 최고운이 신선으로 소요하며 죽지 않고 청학동에 살아 있다는 내용이다. 작품에서 최고운에 대한 탁영의 이해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儒宗인 선각에 대한 흠모의 정과, 또 그의 선진 학문을 펼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학으로서의 아쉬움이다. 전자는 최고운에 대한 작가의 단순한 감정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최고운의 입산 행위와 신선적 자취를 현실과 대극적인 위치에서 보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운의 그러한 자취를 평가하여, “장차 신선, 은자처럼 숨어 세상의 쇠퇴함을 기롱하고 시절과 더불어 흘러가 仙佛에 의탁하여 그로써 스스로를 숨기려 한 것인가?”⁵⁰⁾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탁영은 이 작품에서 최고운의 불우를 공감할지언정 그러한 것에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스스로를 역시 시대적 불우자로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음에서 궁극적으로 탁영이 고운의 자취를 좇아다닌 이

50) 將仙逸隱淪 玩世之衰 而與時偃仰 托於禪佛 以自韜晦耶

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나를 고운이 살던 때에 태어나게 했다면 마땅히 지팡이와 신을 들고 좇으며 고운으로 하여금 외로이 불법을 배우는 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고운으로 하여금 지금에 태어나게 했다면 역시 반드시 자리할만한 곳에 자리하게 하고, 나라를 빛내는 글을 짓고, 태평시대를 표현케 하고, 나 역시 그 문하에서 필연을 받들었을 것이다. 이끼 낀 비석을 어루만지니 감개한 마음이 든다.⁵¹⁾

최고운의 소유처로 표상되는 산은, 현실에서 불우를 겪고 우분을 품고 들어와 의탁했던 위진시대 죽림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탁영이 그러한 고운의 자취를 굳이 탐색하려 한 태도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憂憤에 빠져 自傷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최고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의 계기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산에서 유, 무형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고운의 불우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치세치민의 의기를 역으로 다져나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을 현실과 대극적 차원으로 이해할 때, 유산 행위는 세속의 흙먼지를 털고 자연이 주는 청정함과 정신적 여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의도에 닿는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학문의 연찬과 관직 수행의 辛苦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탁영은 이 작품에서, 지리산의 유산 행위를 소재로 하여 사립정신에 철저한 도학자로서 수기치인의 의기를 밝혀보이고자 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신선과 같이 자연 속에서 소요자적하면서 현실에서 겪는 다기한 곡절을 잠시 잊고 정신적 유일을 탐하고자한 의도

51) 使某生於孤雲之時 當執杖屨而從 不使孤雲蹢躅與學佛者爲徒 使孤雲生於今日 亦必居可爲之地 攜華國之文 賁飾太平 某亦得以奉筆硯於門下矣 摩挲苔蘚 多少感慨

역시 뚜렷한 모습으로 본 작품에 두루 반영되어 있다. 이는 당대 선비들이 지녔던 정신적 지향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드러난 탁영의 정신적 면모는, 산이 주는 탈속성에 전적으로 매몰되어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최고운의 사적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가 누린 선유의 자취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에 쓰이지 못하고 낙척불우의 우분을 지녔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는 고운과 같은 불우를 답습하지 않고, 유학의 가르침을 현실세계에 널리 펼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그의 이후 일생이 보여주듯 혈기방장한 신진사림으로서 훈구세력에 맞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내면세계의 실체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다.

V. 結論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山水遊記는 산을 기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事象을 작품의 소재로 한 것이다. 기행록에서 유람 중에 목격하게 되는 자연경관이나 地勢, 또는 인공 조형물 등 가시적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을 작품 내에 표현하는 방식은 한결같지 않을 것이고, 그 표현 방식상의 차이가 작품의 개성적 특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문학적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경물을 정밀히 묘출하는 기술방식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전체적인 경관을 개괄적으로 관망하면서 그 특징을 짚어내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지리산 전체를 유람하고자

한만큼, 미세한 것에 머물러 큰 산이 지닌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기사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속두류록>의 문장 기술에 있어서 문학적 형상미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원경을 그려내는 데 있다. 특별히 경물을 묘사하는 데 드러나는 비유적 표현이나, 원경을 조망하는 듯한 기술 방식은 한유의 <남산시>에서 배운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남산시>에서 그러하듯이, <속두류록> 역시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정교한 이미지를 그리기 보다는, 전체를 관망하는 중에 호한하고 장대한 느낌의 선이 굵은 표현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겠다.

탁영은 대상을 취재하여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일면을 엿보인다. 즉, 그는 철저히 분석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탁영은 경물을 대하되 그 아름다움을 화려한 수사로 읊는 정도의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논구하는 것이 자연을 언어적 형상으로 환치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고 있었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것이 소소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소 公的인 주제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탁영이 사림의 일인으로서 소위 詞章으로 일컬어지는 문학적 형식미를 인정하기는 하되, ‘載道之器’로서의 문장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그러한 이념적 의도를 포함하여 작가의 다양한 정신적 지향을 두루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각적 각도에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작품의 작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탁영이 성종조의 개혁적 정치의식을 지닌 사림에 속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즉, 그의 산행은 유가의 가르침, 특히 사림이 지향하는 이념의 일단을 실천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遊山은 物我를 객관에서 성찰함으로써 내

칙을 다지는 수양행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연적 질서를 통해 인간 내면의 조화를 궁색하려 했던 성리학적 사유태도는 산의 자연을 경험하고 여기에 오르는 행위를 곧 심성수양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유산행위는 그 자체가 학문적 탐구 방식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산은 세속과 가장 대립되는 원시적 공간임으로 해서 이를 통해 인간존재의 본질이나 우주적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 사변의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수목과 산천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도의 본체를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탁영은 유산을 심성수양이나 학문 궁구의 과정으로 보는 한편, 그것을 治世治民의 意氣를 다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유학자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공자의 ‘登泰山小天下’의 句로 집약된다. 유산의 과정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고 민고를 헤아리고자 하는 그래서 작품 전면에 두루 드러나고 있다. 탁영은 그 자신 상류지배계층의 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지방관아의 실정을 객관적인 비판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그가 비록 산행을 하기 전까지 중앙 언관직을 역임했다 하나, 여전히 실제의 대민정치는 훈구세력이 독식하고 있는 당대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우회적으로 당시 정치적 실세인 훈구세력의 정치적 역량과 성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유학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문인지식인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충실히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철저했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유산자의 이념적 지향과는 별개로, 산은 현실과 유리된 공간, 또는 對極에 위치하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인학사들이 산에 오르는 목적 중의 하나가 시정과는 구별되

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흥취를 도우려는 데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탁영 역시 산수화폭이 담고 있는 수려한 경물과 같이 지리산이 두루 품고 있는 풍광을 즐기고,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는 식생을 지근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리산 산행에 대한 소망을 높여왔음을 보이고 있다. 즉, 그의 산행은 국록에 매인 관리로서의 책무와 학문적 연찬에서 오는 수고로움을 벗고 정서적 유일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쾌감을 맛보려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산수자연에서의 자약불기한 삶에 대한 깊은 취향과 습벽에 기인한 것이었다.

선비 중에는 인간 세상에 뜻을 잃고 일신을 숨기거나 정치적 화를 피하고 성명을 보전하거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도가적 수련을 구실로 산에 든 경우가 있었다. 탁영이 작품에서 고운 최치원을 다루는 태도는 이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작품에서 최고운에 대한 탁영의 이해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儒宗인 선각에 대한 흠모의 정과, 또 그의 선진 학문을 펼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학으로서의 아쉬움이다. 전자는 최고운에 대한 작가의 단순한 감정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최고운의 입산 행위와 신선적 자취를 현실과 대극적인 위치에서 보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탁영은 이 작품에서 최고운의 불우를 공감할지언정 그러한 것에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스스로를 역시 시대적 불우자로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탁영이 고운의 자취를 굳이 탐색하려 한 태도는 憂憤에 빠져 自傷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최고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의 계기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산에서 유, 무형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고운의 불우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치세치민의 의기를 역으로 다져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 그의 이후 일생이 보여주듯 혈기방장한 신진사림으로서 훈구세

력에 맞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내면세계의 실체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유교, 사림, 탁영 김일손, 지리산, 산수유기

참고문헌

『濯纓集』

『佔畢齋文集』

『柳河東全集』

『昌黎先生文集』

『明宗實錄』

李秉然,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소 편, 『濯纓 金駟孫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李章佑, 「<南山詩>의 詩語 研究(上)」, 『中國語文學 3卷』, 嶺南中國語文學會, 2003

李章佑, 「<南山詩>의 詩語 研究(下)」, 『中國語文學 4卷』, 嶺南中國語文學會, 2004

이혜순 등 공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2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1

허흥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제18집, 1995

洪承直, 「柳宗元의 游記研究」, 『中國學論叢』5, 高麗大學校中國學研究所, 1991

A Study on <SokDuryurok>

- Focusing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writer' intent -

Moon, Beom-D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writer's intent of <SokDuryurok>. This work is the travel essay written by Kim, Eelson, a politician and scholar of Josun Dynasty. He wrote this essay after touring Jirisan which is the highest mountain in Kyungnam province. He traveled this mountain with his best friend, Jung, Yeochang for fifteen days. In this essay, there is no detailed description on the things he saw during the his traveling. On the other hand, he described the overall landscape of this mountain. He doesn't understand things in itself but accepts analytically on his own viewpoint. In this essay, he intended to express his faith on Confucianism, especially Sarim spirit, which is taking a serious view of internal training and stubborn self -controlling. And he wanted to show his concerning on people' life through this work. The other thing he wants to express in the essay is that touring mountain help us relax our soul and forget the political problem. But he didn't want to fall in the amusement totally that the mountain may offer. Otherwise, through touring mountain, he want to have chance to make firm determination to reform the social problems.

Key words : Confucianism, a scholar's group in Josun Dynasty, Kim, Eelson, Jiri Mountain, journey essay

문범두

소속: 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진주산업대학교

전화번호: (직장)055-751-3468 (휴대전화)017-584-3232

전자우편: bdmoon@jinju.ac.kr

이 논문은	2007년	11월	1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